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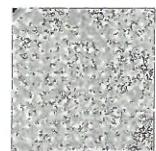
서울주보

제2407호 2022년 8월 14일(다해)

연중 제20주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종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시편 84(83),10-11 참조

보소서, 저희 방패이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당신 뜨락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천 날보다 더 좋사옵니다.

제1독서 | 예레 38,4-6.8-10

화답송 | 시편 40(39),2ㄱㄴ.2ㄷ-3.4.18(◎ 14ㄴ)

◎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

○ 외치는 내 소리 들어 주셨네. 나를 멸망의 구렁에서, 더러운 수렁에서 꺼내 주셨네.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워 주시고, 발걸음도 든하게 잡아 주셨네. ◎

○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많은

이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신뢰하리라. ◎

○ 나는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네. 저의 도움, 저의 구원 당신이시니, 저의 하느님, 더디 오지 마소서. ◎

제2독서 | 히브 12,1-4

복음환호송 | 요한 10,27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복 음 | 루카 12,49-53

영성체송 | 시편 130(129),7

주님께서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불의 몇 가지 특징들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싫은 소리를 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가짐, 생활양식, 학업의 중요성, 세상을 바라보는 눈 등 알려주고 싶은 것이 많아 때로는 편안과 잔소리가 섞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종종 갈등이 되는 것은 ‘사랑, 평화, 자비의 가치’에서 비롯되는 고민입니다. 혹시나 나로 인해 상대방 마음의 평화가 깨지지는 않을까 덜컥,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평화를 거부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네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나요? 사랑과 일치를 강조하셨던 주님이신데 분열을 선포하시다니. 우리가 알았던 예수님이 아닌 듯합니다. 더욱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여기서 우리는 이 “불”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의 특징은 첫째로, 매우 뜨겁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들지요. 이를 종합하면 불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전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 새로운 생명을 위한 갈등과 희생, 분열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불, 즉 새로운 생명과 사랑에는 마땅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유다인들의 문화권에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따

른다는 것은 기존 사회의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험이며 결단이었고 전통 사회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했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불이 이 세상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이 자리에는 부활과 구원이 생겨날 것입니다. 즉, 뜨거웠던 사랑의 자리에는 평화가 넘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까요? 불의 세 번째 특징은 태워질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 교만, 신앙에 대한 낙태함, 분노, 불신 등 우리가 태워야 할 것들은 참으로 많지요. 침묵하는 것보다 편해 보이고 사랑보다 미움이 더 흥미로우며 그리스도교의 윤리 가치를 실천하는 것은 거추장스럽고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만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겪는 어려움과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안주하며 이 불을 피해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나의 신앙을 위해 무엇을 태우고 비워낼지 결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불은 여러 곳으로 퍼져서 더욱 큰 사랑의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공간이 생겨나겠지요. 주변으로 벌어나간다는 것, 새로운 자리가 마련된다는 것. 이것이 불의 마지막 특징이랍니다.



나바위성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루카 12,51)



역설입니다. 평화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수년 전 성체조배 당번이 되어 매주 같은 시간에 성체조배실을 찾았습니다. 조배실에 들어갈 때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 미움으로 마음이 소란했지만 나올 때는 깊은 심연에서 나온 듯 고요해지면서 평화로웠습니다. 그 고요와 평화를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려는 평화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런 평화가 아닐까요?

홍덕회 아네스 | 가톨릭사진가회



그리운 정진석 추기경님

제 생애의 잊지 못할 날 중 하나는 서울대교구 생명 홍보 대사로 임명된 날입니다. 미사 중 제대 앞으로 나가자 정진석 추기경님께서 임명장과 꽃다발을 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처음에 교구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중책을 맡을 수 있을까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많은 저라도 작은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서야겠다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지금도 그날 제대에 오르는 순간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떠오릅니다. 정 추기경님께서는 아버지 같은 흐뭇한 미소로 제대 가까이 나오는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자 떨리는 마음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아버지 집에 나서는 듯한 편안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추기경님께서는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텐데 홍보 대사를 맡아주어 고맙다고 하시며 어느 날 주교관 저녁 식사에 저를 초대해주셨습니다. 식사 자리에 마주 앉으신 정 추기경님은 편안한 복장으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이끌어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계을러서 기도도 못 하고 지방 촬영 때는 미사도 빠진다고 말씀드렸을 때 정 추기경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비비안나 자매님에게 하느님께서 특별한 탈렌트를 주셨어요. 그 탈렌트를 잘 사용하는 것이 하느님의 자녀 된 도리예요. 사람에게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마음속에 하느님을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죠. 하느님은 비비안나 자매님의 마음을 잘 아시지 않겠어요?” 그 말씀에 저는 그동안 살면서 원치 않게 가졌던 미움이나 안 좋은 마음, 실망과 좌절의 체험 등이 모두 다 사라지듯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늘 묵주기도를 하고자 노력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정 추기경님께서는 매일 기도하시던 당신의 묵주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저에게 선물로 주셨

습니다. 저는 아무 말씀도 못 드리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이후 소중한 인연을 이어오면서 정진석 추기경님께서 일선 사목에서 물러나 혜화동에 계실 때에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영혼의 아버지처럼 늘 의지가 되었는데 선종하기 얼마 전 병문안을 했을 때 편찮으신데도 자꾸 웃어주셔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결국 작년 5월 명동대성당 정진석 추기경님 빈소에서는 슬퍼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처럼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슬프게 울어 신부님들이 걱정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빈소에서 울고 있는데 문득 정 추기경님께서 “비비안나, 울지마, 난 팬찮아. 이제 아프지도 않고 주님 품에 잘 쉬고 있어. 내가 늘 기도해줄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나면 용인 성직자 묘지에 들러 꽃 한송이 바치고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면 정 추기경님께서 인자한 미소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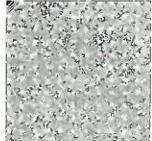
한컷 북상

우리가 빛나는 힘을
꼭준다 달려갑시라

2022. 12. 1



류상애 아녜스 수녀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형제들에게 따돌림당한 요셉



허영업 마티아 신부 |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야곱의 부인은 레아와 라헬 두 명이었습니다. 이 둘은 친자매 간이었는데 야곱은 동생인 라헬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언니 레아가 자녀 여섯 명을 낳는 동안 자식이 없어 속상해하던 라헬이 드디어 요셉을 출산합니다. 요셉은 이미 복잡한 역기능적 가족 구조 속에서 태어났고, 그의 성장 과정 중 나타날 갈등과 고난은 이미 출생 단계에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인, 라헬에게 얻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유별난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열두 살 정도가 될 무렵,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요샛말로 더욱 심한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집단 괴롭힘은 분명한 의도 하에 한 명 또는 소수의 사람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외로 내몰며 적극적으로 괴롭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따돌림은 요즘은 다양한 사회 그룹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회 적응이 어려워지고,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및 외로움 등의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성인기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울과 불안, 사회적 위축과 같은 사회 심리적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던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편애적인 행동은 형제들의 질투 감정을 일으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

과 시기가 더 심해져 결국 노예가 되어 이집트로 팔려가는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춥고 배고픈 시절에는 옷가지와 음식이 중요한데 아버지 야곱이 지나치게 요셉을 편애함으로써 오히려 요셉이 더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편애와 차별을 경험했던 형제들도 큰 상처를 갖게 되고 극도의 불안감과 피해의식 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성경에 나오는 어린 요셉은 한참 철없는 소년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자신의 꿈 내용을 형들에게 말한 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과 적개심을 사게 됩니다.(창세 37,5-8) 이후 형들과 요셉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치닫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버지 야곱과 라헬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을 미워한 형들은 결국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고, 요셉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여곡절을 겪으며 감옥에 수감되지만, 요셉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겸손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창세 39,1-6)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을 섬기고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의 모델이 됩니다. 그가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 고통을 겪으며 진리의 길을 포기할 수 있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느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를 구약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경의 인물>이라 부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읽어보세요.)



안토니오 비발디(1678~1741, 이탈리아)
사진출처: 음악의 역사 (음악사 대도감)

음악칼럼 ♪

빨간 머리 사제 비발디 성모 찬송가(Salve Regina, 여왕이시며...)



임주빈 모니카 | KBS프로듀서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을 앞두고 성모님과 관련된 음악들을 떠올려봅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곡은 당연히 <아베 마리아(Ave Maria)>죠. 수많은 작곡가의 아베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주보의 이 칼럼에서 페르골레시의 곡으로 소개해드린 <슬픔에 잠긴 어머니(Stabat Mater)>가 있습니다. 또, 동정의 몸으로 예수님을 임태한 마리아가 사촌 엘리사벳을 찾았을 때 부른 마리아의 노래 <마니피캇(Magnificat)>도 여러 작곡가의 작품으로 전해져옵니다.

하나 더 생각나는 곡은 연중시기에 부르는 성모 찬송가 <살베 레지나(Salve Regina, 여왕이시며...)>입니다. 이 성모 찬송은 목주기도 끝에 바치는 기도문이라서 비교적 친숙하지만, 감상용 음악으로 듣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하지만 그레고리오 성가부터 팔레스트리나, 비발디, 헨델, 페르골레시, 하이든, 리스트, 슈베르트 등 수많은 작곡가가 이 기도문에 곡을 붙였습니다.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四季)>의 작곡가로 유명한 안토니오 비발디(Antonio Vivaldi, 1678~1741, 이탈리아)는 다섯 곡의 <살베 레지나>를 작곡했습니다. 그중 한 곡은 미완

성 작품이고, 한 곡은 유실되어 세 곡이 연주되는데, 다른 단조 리듬번호(Rv.) 616번이 자주 연주되는 편입니다.

머리카락이 붉고 가톨릭 사제 서품을 받았기에 '빨간 머리의 사제'라는 별명을 가진 비발디는 조산아로 태어나 평생 심장병과 기관지병을 끼고 살았습니다. 성직자의 의무를 면제받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죠. 대신 그는 고아들을 돌보는 '피에타 여자 양육원'의 음악 책임자로 임명되어 원생들의 음악 교육과 연주 활동을 담당했습니다. 비발디의 술한 기악곡과 교회음악이 이 피에타 양육원에서 연주됐습니다. 비발디의 현란한 바이올린 연주와 함께 원생들로 구성된 연주단의 뛰어난 실력은 당시 유럽 전역에 명성이 자자했다고 하죠. 전문 악단보다도 실력이 낫다는 평가를 받아, 공개 연주회에는 일반인뿐 아니라 외국의 음악가들까지 몰려들 정도였습니다.

비발디는 건강상의 문제로 사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연주 여행에 동행하던 여가수와의 소문, 돈과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생활 방식 등으로 사제로서는 비난받기 일쑤였다고 하죠. 하지만 주님이 주신 재능으로 <글로리아>, <살베 레지나>, <스타바트 마테르>, <마니피캇> 등 훌륭한 교회음악을 많이 작곡해서 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니, 비발디를 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궁금해집니다.



비발디 / 살베 레지나 다단조
노래: 안드레아스 솔카운터 테너
연주: 호주 브란덴부르크 오케스트라

성당은 '빛의 성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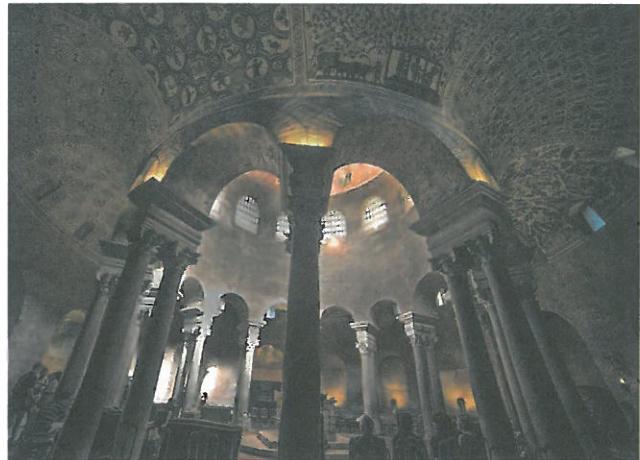
김광현 안드레아 |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성합(聖盒)과 성작(聖爵)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을 담는 거룩한 그릇입니다. 성혈을 받아 모시는 그릇인 성작은 컵, 마디, 받침대 등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컵은 포도주를 담습니다. 받침대는 성작의 중심을 잡고 서 있으며 마디는 컵과 받침대를 연결합니다. 이 때 아래의 오목한 부분은 땅이고, 그 안에 빛을 가득 채우는 빈 부분은 하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작을 빛을 받는 돌로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를 점점 크게 확대하여 집이 되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돌로 만든 이 거대한 그릇은 성혈을 모시는 성작을 담고, 그것이 놓인 제대도 담으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하느님 백성도 담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 그릇은 위에서 내려오는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다면 돌로 만든 이 성작은 빛을 향해 하늘로 들어 올리는 거대한 그릇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당입니다. 성당은 그야말로 거룩하게 빛나는 또 다른 '빛의 성작'입니다.

성당을 '빛의 성작(chalice of light)'이라고 말한 사람은 독일을 대표하는 교회 건축가 루돌프 슈바르츠(Rudolf Schwarz, 1897~1961)였습니다. 제대를 둘러싸고 서 있는 백성은 영원을 향해 제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땅은 제대를 통해서 빛을 향해 올라가고, 열린 하늘은 말씀이 되어 제대 위로 내려와 사람들 한가운데 머무십니다. 그는 이렇게 하여 빛을 받는 성작처럼 성당의 모든 구조물도 빛을 받고 있고, 성작의 형태는 그것을 담고 있는 성당 건물 전체에 스며 들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는 성당을 '빛의 성작'이라 불렀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성당 건축가였습니다.

성당은 성작처럼 금이나 은과 같은 귀한 재료가 아니



로마의 산타 코스탄자 성당(340~345년)

라, 벽돌, 돌, 콘크리트, 나무, 회반죽과 같은 어두운 재료로 지어집니다. 그렇지만 성당은 바닥과 벽과 지붕으로 둘러싸인 단순한 집이 결코 아닙니다. 성당은 그리스도의 성혈을 안고 있는 거대한 성작, 거룩한 빛으로 가득 차는 거대한 '빛의 성작'입니다. 하느님께서 부르셔서 성당에 들어간 우리는 결국 거대한 '빛의 성작'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산타 코스탄자(Santa Costanza) 성당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가장 뛰어난 건축물의 하나입니다. 원형 구조물이 높이 올라가고 그 위로는 둥근 드럼이, 또 그 위에는 돔이 올라가 있습니다. 드럼에는 12개의 창이 뚫려 있는데 이 창을 통해 빛이 들어옵니다. 이 빛은 그 밑에 있는 제대와 그것을 둘러싸며 모인 하느님 백성을 포괄하며 공간 전체를 조용히 감싸줍니다. 꽃처럼 피어 있는 저 아름다운 원형의 성당 공간은 그야말로 성혈을 담고 있는 성작을 닮은 거대한 '빛의 성작'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빛의 성작'인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계시는가요? '빛의 성작' 안에 담겨 있다는 것만으로 이 땅의 모든 하느님 백성은 참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순례로 함께하는 희망의 여정

9월愛 동행

내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은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는 순례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위원장 손희송 주교)는 오는 9월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 ‘순례로 함께하는 희망의 여정, 9월愛 동행’을 진행합니다.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년째 진행되는 ‘9월愛 동행’은 특별한 역사가 담긴 ‘천주교 서울 순례길’ 안에서 우리 신앙의 뿌리를 찾아가는 소중한 여정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 모두 시노드 교회를 살

도록 초대해주신 만큼, 이웃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나눔의 정신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9월愛 동행’을 통해 순례길 걷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2022 순교자 성월 주요 행사

순교자 성월을 여는 미사

일시: 9월 1일(목) 오전 10시

장소: 명동대성당

집전: 서울대교구 주교단 공동 집전

※ 각 성지별 미사 진행

순교자 성월을 닫는 미사

일시: 9월 25일(주일) 오후 3시

장소: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집전: 순교자현양위원회 위원장 손희송 주교

청소년 청년 순례길로!

대상: 천주교 서울 순례길에 관심 있는 만 16세~38세 청소년 청년 누구나

기간: 8월 15일(월) ~ 9월 25일(주일)

참여 방법: ‘서울 순례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스텁프 모아 응모. 먼저 응모 완료한 200명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 증정

※ [인스타그램\(@komar_seoul\)](#)에서도 이벤트 진행

천주교 서울 순례길 걷고, 기부하기

기간 : 8/15(월) ~ 9/25(일)

▶ 참여 방법

- 1) 지정 구입처에서 8,000원 이상 기부하고 순례자 여권 세트 수령
- 2) 천주교 서울 순례길의 24곳 스텁프 날인, 순교자 성월을 닫는 미사에서 축복장 수령

▶ 지정 구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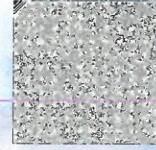
가회동성당, 광희문 순교자 현양관, 교구역사관(명동), 국군 종양성당(왜고개성지), 당고개 순교성지, 삼성산성당, 새남터 순교성지,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절두산 순교성지, 종로성당, 중림동 약현성당,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

※ 순례자 여권 세트 구입비 전액은 이웃사랑실천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9월愛 동행’ 기간 동안 해설이 있는 도보순례는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 자세한 행사 내용은 [검색창: 순교자현양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순교자현양위원회](#) 추가

※ 문의: 02)2269-0413(www.martyrs.or.kr) 순교자현양위원회



서울대교구 묘원 추석 성묘 안내

1) 천주교 용인추모공원 추석 성묘 안내

미사: 9월 4일(주일) 10시 / 차량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장묘관리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미리 전화 예약(02)727-2225)후 송금하셔야 자리 배정이 가능합니다.(성묘객 중 자가용 이용자 명동대성당 주차 불가)

오전 9시	명동 출발	10분 전 승차 요망(교구청 앞)
오전 10시	미사 예정	용인묘원 경당(김수환 추기경 기념 경당) 명동 출발 차량 도착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
오후 2시	용인 출발	10분 전 승차 요망

승차권 예매: 8월 8일(월)부터 선착순 자리 배정(1매 2만 원 - 조기 마감 가능) / 문의: 02)727-2225 장묘관리팀

계좌: 우리은행 1005-604-153436 천주교용인추모공원
마스크 미착용시 차량 탑승 및 경당 출입이 제한됩니다.

2) 천주교 비봉추모관 추석 성묘 안내

미사: 9월 4일(주일) 오전 11시, 비봉추모관 명례방
미사관련문의: 031)355-0191 비봉추모관 관리사무소
명동 및 도림동성당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미사참례, 봉안당 출입이 제한됩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75년 8월 19일 최민순 요한 신부(63세)
- 1977년 8월 15일 이기준 토마스 신부(93세)

교구정일립

서울대교구 사목상담 '화상수업'

주제: 태아기, 탄생기, 영아기 치유
때: 8월15일~11월14일 매주(월) 20시~21시
교육지도: 문종원 신부 / 문의: 010-6224-2920 강명인

서울대교구 온라인 예비신자교리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온라인 예비신자교리' 내용 참조 / 신청: 본당 사무실
문의: 02)727-2069 사목국 교육지원팀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9월1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송영호 국장신부, 김윤상 차장신부(해외선교봉사국) / 문의: 02)727-2407, 2409

민족의 회복과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북녘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31차 미사 8월16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주 기억할 본당: 서울대교구 황주 본당, 사창 본당
미사 후에는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슬픔 속 희망찾기' 월례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매월 세번째(토) 8월20일 10시-목주기도, 10시 30분-유가족미사
곳: 명동대성당 옆 영성센터 경당(상설고해소 건물)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시복사성 기원미사와 '9월愛 동행' 안내

1) 시복사성 기원미사(177회)
이달의 하느님의 종 '김이쁜 마리아'
때: 매월 셋째주(화) 8월16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2) 순례로 함께하는 희망의 여정 '9월愛 동행'
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에서는 8월15일(월)부터 <순례로 함께하는 희망의 여정, 9월愛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다채로운 순교자 성월 행사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제41차 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

때, 곳: 8월18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성당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23회 교정시설 지원봉사자 교육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형제·자매들의 교정교화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교육을 시행합니다
때: 9월1일~12월1일 매주(목) 오후 2시~5시
회비: 10만원 / 문의: 02)921-5093

사목국 직장사목팀 피정대회 및 AESTUS CHOIR 남자 단원모집

1) 제37회 대한민국 가톨릭공직가족 피정대회
대상: 전국 가톨릭 공무원 및 공사공단 직원과 가족(퇴직자 포함) / 내용: 도보성지순례 및 영성 특강, 문화공연 및 장암미사(집전: 정순택 대주교)
때, 곳: 9월24일(토) 10시~17시, 효창운동장(도보성지순례 포함) / 문의(신청): 02)727-2078 직장사목팀, 서울시교우협의회, 기관별 교우회 총무
2) 직장사목팀 성가단 AESTUS CHOIR 남자 단원모집
대상: 20~40대 직장인 가톨릭신자
모집인원: 테너, 베이스 00명
연습: 매주(금) 19시30분 / 미사: 둘째주(금) 20시, 명동대성당 꼬스트홀 2층 소성당
문의: 010-5203-4355 단장, 010-5104-5644 부단장

사목국 '성서못자리' 2022 후반기 강좌/문의: 02)727-2379

접수기간: 8월1일(월)~29일(월) / 선착순 인터넷 접수
접수링크: <http://samok.or.kr/html/bibleseedbed> 인터넷창에서 성서못자리를 검색하세요

1) 명동 오전 정기강좌(정기강좌 및 나눔터학교)

때, 곳: 9월5일~12월12일 매주(월), 명동 교구청 내 강의실(5주 강의)
강의시간: 10시30분~12시30분

개강미사: 9월5일 11시30분, 명동대성당

회비(교재 지급): 정기강좌 8만원, 나눔터 7만원

강사신부 및 강의실 홈페이지 참조

2) 청년(요한복음), 직장인(정기강좌 2권) 성서못자리

때: 9월7일~12월14일 매주(수) 19시30분~21시(15주 강의)

회비(교재 지급): 청년 5만원, 직장인 8만원

3) 미주 온라인(zoom) 성서못자리 정기강좌

(2권-동부 화요반·서부 목요반·입문-동부 화요반)

때: 9월6일~12월15일(매주 1회 60분 강의 / 한 학기 15회 수업) / 회비: 8만원(수수료 포함)

4) 온라인 성서못자리('에드워드' 플랫폼 활용)

때: 9월5일~12월31일 / 회비: 10만원

가톨릭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76-8405

홍성남 신부(소장)의 영성심리특강 및 미사
때, 곳: 8월20일(토) 15시부터, 가톨릭회관 7층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제20회 수원가톨릭미술가회 성화성을 전: 1전시실
제25회 수원가톨릭미술가회 정기전: 2전시실
갤러리1898 '성미술 청년작가 공모전' 선정작가 김유경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8월17일(수)~22일(월)

직원모집

서울성심간병인회 남녀 간병사 수시 모집

곳: 서울삼성, 서울성모, 여의도성모, 은평성모병원
근무 내용: 환자에게 간병 제공(24시간 병원 상주) / 1522-9415

역삼동성당 미화원 모집 / 문의: 02)553-0801

대상: 성실하신 교우 / 업무: 성당 청소 및 기타 관련업무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8월20일까지 방문·우편(우 06222, 서울시 강남구 앤주로85길 23-11) 및 이메일(yscatholic@naver.com) 접수

서울대교구 사제평생교육원 직원 모집(육아휴직 대체)

대상: 견진을 받은 교우로 사무행정 및 회계업무 가능자 / 업무: 사제연수 준비, 사무행정
근무기간: 9월13일~2023년 9월12일(1년 계약직)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 문의: 02)766-5195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8월30일(화) 18시까지 이메일(cprof@seoul.catholic.kr) 접수

서울대교구청 직원 모집(육아휴직 대체)

대상: 세례받은 분(교회기관 경력자 우대)
분야: 사무 행정 업무 1명(1년 3개월 계약직)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분야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 8월21일(일)까지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주 40시간
남녀 요양보호사	주 40시간 3교대, 기숙사 가능

가톨릭성지대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 수시 1차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수시 1차 모집: 9월13일~10월6일 / 입학문의: 054)851-3021(www.csj.ac.kr) 입학홍보처

대구가톨릭대학교 2023년 수시 모집

전국 최대 규모 가톨릭계 종합대학
수시 최초 합격자 전원 장학금 지급(인문 100만원, 자연·예체능 150만원) / 입학문의: 053)850-2580
2,556명 수용, 지역 최고 수준 기숙사

돈보스코미디어스쿨 신입생 모집

과정: 고등과정(17세~24세) / 문의: 02)833-0930
검정고시반, 독서, 사회, 영어, 체육, 미디어, 제과제빵, 미술, 사진 / 남자기숙사 운영
곳: 돈보스코 미디어스쿨(양천구 신월3동)
홈페이지: http://db-mediaschool.kr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주제: 일상 삶에서 하느님 만나기 / 회비: 7만원
대상: 성서를 통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신자
때: 9월7일부터 매주(수) 10시30분~19시40분(6주)
곳: 한국CLC 강의실전철2·5호선 영등포구청역4번출구
8월25일까지 접수 / 문의(접수): 02)333-9898 한국CLC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내용: 검정고시, 수능, 영상제작, 사진, 피아노, 필라테스, 포토샵 등 / 자원봉사자: 검정고시, 수능, 문화, 외국어 수업 가능하신 분
문의: 02)382-5652 서울형대안교육기관 청소년 문화공간JU역촌동

반포4동성당 김대건 안드레아 성서 아카데미(모세오경)
주제: 이야기로 배우는 모세오경
대상: 신자 및 성경에 관심 있는 분
강사: 박요한 영식 신부(반포4동성당 주임)
때: 9월1일~11월10일 매주(목) 10시50분~12시
곳: 반포4동성당 대성전 / 회비: 4만원(교재비 포함)
8월27일까지 접수 / 강의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도 수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02)3482-2255 반포4동성당 사무실

모집

제9회 가톨릭영화제 현장 지원활동가 모집
모집기간: 10월13일까지 / 홈페이지(caff.kr)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주교좌 명동대성당 미사해설단 신규봉사자 모집
대상: 견진성사를 받은 20~30대 남녀 교우
8월28일까지 접수 / 문의: 010-8676-9231
홈페이지(www.mdsd.or.kr) 단체모집 공고 참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봉사자 모집
대상: 2019년~2022년 호스피스교육 수료증 소지자
모집기간: 8월7일(일)~31일(수)
접수: 서울성모병원 홈페이지(www.cmcseoul.or.kr/page/main) 참조 / 문의: 02)2258-1901, 1904

미사

새천년복음회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2)753-8765
때, 곳: 8월18일(목) 12시, 가톨릭회관 3층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8월23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파티마 성모 밸런 105주년 기념 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셀기도, 기념 미사 /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8월19일(금) 9시30분~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월례미사

중남미 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집전: 송영호 신부 / 문의: 02)749-4596

때, 곳: 8월29일(월)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인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cac.or.kr)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영성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전화상담 가능)

전생애 심리치료 부모교육

대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청소년의 부모 / 무료
곳: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연남동 분원(주최, 홍대 근처) / 문의: 010-3703-5904 경혜자 수녀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벨사비의수녀회)

서원동성당 신자지원시설(상가) 입주자 모집 공고

대상: 근생(소매업·휴게음식점) 업종으로 직접운영 가능
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02)727-2306 가톨릭회관
서류: 입점신청서, 사업계획서(이메일로 서류양식 신청)
8월31일까지 이메일(c-center@catholic.or.kr) 접수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사별가족 돌봄 프로그램 '사랑마루'

대상: 사별을 경험한 가족으로 회복의 시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 / 8월28일(일)까지 접수
때: 9월15일~11월3일 매주(목) 14시~17시(8회)
곳: 용산성당(용산구 효창원로15길 37)
문의: 010-8891-4572-용산성당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리조트)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향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scen.or.kr

목요반: 강의 9월1일부터 매주(목) 10시~11시30분(14주), 그룹훈련 11시30분~13시
자아의 통합과 영성
금요반: 비대면 온라인 강의(Zoom) 9월2일부터 매주(금) 14주, 치유적 강의 및 훈련 9시30분~12시30분
전문 심리상담
부부 및 가족상담, 개인상담·정서불안, 우울, 분노, 의사소통의 어려움

한국여성생활연구원 창립 44주년 기념 행사

담당: 나원균 몬시뇰 / 문의: 02)727-2471
때, 곳: 8월28일(일) 14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기념식·졸업식 성인초중학, 검정고시 합격자
문화예술제 4월과 5월, 봄날중창단, 동화구연, 합창, 시화 및 작품전
덕종이인형 전시회 8월23일~30일, 경인갤러리(인사동)
주요 사업 교육복지연구, 성인학력인정초중학, 검정고시, 커피 마스터, 노래, 기타, 금융상담, 덕종이인형, 영어, 한글, 디지털교육, 평화통일교육, 연구, 한국여성연합신문

유관단체 일정

다솜터 심리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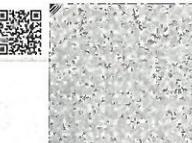
상담: 불안, 우울, 공황장애, 부부, 진로,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꼴룸반회, 심리학박사)
문의: 010-9146-7654(www.dstcoun.net)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명동) 501호
개인상담 정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갈등문제
심리상담 미술심리상담사 2급 과정 9월17일~10월 교육 15일 (토) 10시~15시(5회)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3012-2616 조성하 신부
성모 자현 애덕의 도미니꼬 수녀회 8월28일(일) 14시	수녀원(부천)	010-5166-1275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8월28일(일) 9시	서울 분원(장충동)	010-8353-2323(문자 문의) / osb3@hanmail.net	
성심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수시	수녀원(서울)	010-8563-6875, 02)941-4139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8월21일(일) 13시30분~17시	본원(마리아)	010-9816-0072	
원죄 없으신 마리아 교육 선교 수녀회 9월3일(토)	서울 내 성지	010-3944-1375	
착한목자수녀회 8월20일(토) 14시	수녀원(자양동, 전철 2·7호선 건대입구역)	010-7197-1390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8월20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한국외방선교회 9월4일(일)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만남, 그 신비**

안영 지음
성바오로출판사(리번북스) | 304쪽 | 1만8천원
문의: 02)945-2972, 010-2572-1365.

1968년 『현대문학』 1월 호에 '가을, 그리고 산사'가 발표된 뒤, 저자 자신의 오랜 소망과 이후 주인공 수도승이 어떻게 세상을 헤쳐 나갔을지 궁금해하는 독자들의 기대가 맞물려 그 후편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문학과 신앙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엮었다.

**신간****일상에서 피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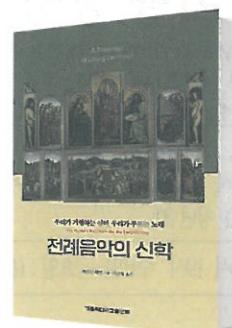
김미정 지음
바오로딸 | 224쪽 | 1만2천원
문의: 02)944-0944

이 책은 피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활 터전을 떠나지 않고도 이나시오 성인의 영신수련 방법으로 체계적이면서도 쉽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기도 지침서이다. 영신 수련의 '원리와 기초'를 응용하여 5주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영화****기도의 숨결**

상영관: CGV명동, CGV압구정, CGV용산아이파크몰, CGV수유, CGV강변, 아트나인, 필름포럼
문의: 02)3672-0181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 시 주보 1부로 1명 2000원 할인(할인 진행 극장: 아트나인, 필름포럼)

<위대한 침묵>, <사랑의 침묵>에 이은 세 번째 가톨릭 영화 <기도의 숨결>이 오는 8월 18일(목)에 개봉한다. 프랑스 쥬크에서 평생을 서약한 성 베네딕토 회 수녀들의 충만한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로 성 베네딕토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와 노동을 통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수녀원의 일상을 그렸다.

**신간****전례음악의 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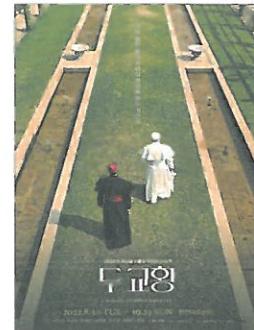
캐슬린 하먼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172쪽 | 1만3천원
문의: 02)740-9718

'왜 교회는 항상 전례에서 노래를 부르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하는 이 책은 전례에 대한 기초적인 진술과 더불어 음악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곧 음악 그 자체가 가지는 실질적인 기능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음악이 전례와 맺는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한다.

**공연****2022 국립합창단 기획공연
마지막 눈사람**

입장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02)580-1300 예술의전당, 1544-1555 인터파크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 시 주보 1부로 2명 20% 할인
(초·중·고 대학생 30% 할인 대학원생 제외 / 경
로우대 만 65세 이상 50% 할인·본인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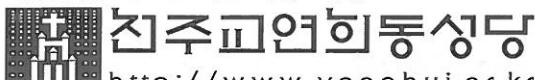
국립합창단의 기획공연 <마지막 눈사람>이 8월 30일(화) 19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있다. 써머 코랄 페스티벌 두 번째 시리즈로, 시인 최승호가 재구성한 텍스트 '마지막 눈사람'을 기반으로 작곡가 최우정이 작곡한 작품이다.

**연극****두 교황**

입장권: VIP석 9만원, R석 7만원, S석 2만원
문의: 02)2250-5923 (단체 문의)
전화 예약(1577-3363)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
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 시 주보 1부로 4명
40% 할인(VIP석 30%, R, S석 40% 할인, 단체 10
인 이상 전화 문의)

연극 <두 교황>이 8월 30일(화)부터 10월 23일(주일)까지 한전 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자진 퇴위로 바티칸과 세계를 뒤흔든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그 뒤를 이은 교황 프란치스코의 실화를 바탕으로 그린 작품이다. 신구, 서인석, 서상원, 정동환, 남명렬, 정수영, 정재은, 조희 등이 출연한다.

제2241(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노병국(바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종)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인 면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8월 15일(월)	오전 7시
	오전 11시 (교종)
	오후 6시 (청년)

* 주일학교 미사는 없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가족들과 함께 미사참례하시기 바랍니다.

◎ 성소후원회 미사 : 8월 16일(화) 오전 10시

* 성소후원회 회원분들 회비는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규 아우구스티노 보좌신부 영명축일 축하식

일시 : 8월 28일(주일) 11시 미사 후

* 신부님께 하느님의 은총이 늘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전 9시, 11시 미사 후 전신자 음식나눔 찬치가 있습니다.

◎ 8월 병자영성체 없습니다.

◎ 초등부주일학교 여름가족캠프

일시 : 8월 19일(금)~21일(주일)

장소 : 용문청소년수련원

대상 : 초등부 가족(유치부 포함)

* 학생만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의 : 안토니오 교감 (010-5377-8909)

* 주일학교 여름행사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8월 20일(토)은 초등부 여름가족캠프로 오후 3시 미사가 없습니다.

◎ 청년 여름 산책(캠프)

일시 : 8월 27일(토) 9시~16시(예상)

장소 : 북한산 계곡길

대상 : 20세 이상 청년

내용 : 여름내 지친 자연과 자신을 돌보는 산책 여정

회비 : 15,000원

문의 : 요한보스코 캠프장 (010-7255-6707)

◎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대상 :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의 학부모

기간 : 8월 9일(화)~11월 16일(수)

일시 : 매일 오후 8시 / 소성전

문의 : 중고등부자모회장 (010-3264-7970)

* 신청은 문자로 연락바랍니다.

◎ 성서 백주간 그룹원 모집

성경을 3년간 읽고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누구나 신청하면 됩니다.

시작 : 9월 4째주부터

수요일 10시미사 후, 토요일 10시

문의 : 알비나 대표 (010-5292-6379)

◎ 성물방 봉사자 모집

문의 : 효주아녜스 대표 (010-6355-8987)

◎ 오늘은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 현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8. 7)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097	837 (39.9%)	795 (37.9%)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유지보수기금 (2022년)

누 계 58,439,300원

◎ 감사현금 (8월 1일~7일)

정수진 칠민원 이주열 삼십만원

김재균 오만원 임치순 오십만원

이화영 일민이천원 최일곤 일십만원

의 명 일십만원 박선숙 오만원

의 명 일십만원 익 명 일백만원

박명숙 오만원 한인경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연중 제19주일)

교무금 11,930,000원

주일헌금 4,461,000원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헌금 1,658,000원

입당	20	봉헌	217, 332	성체	496, 163	파견	63
----	----	----	----------	----	----------	----	----



주 님 어 서 저 를 도 우 소 - 세